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2주년 추모식

# 추 모 사

- 일시 : 2022년 5월 6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32주년 탄신일을 맞이하여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의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자강 그리고 해방 후 민주건국의 위대하신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우리를 괴롭혀서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소수의 귀빈만을 모신 가운데 조촐하게 모셨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동아일보사 퇴임 임직원의 모임인 동우회 조강환 명예회장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 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험난하고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항상 해방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몸바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정신과 업적은 우리역사의 찬란한 한 페이지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평생 친구요 동지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시면서 지조와 경륜, 애국심을 겸비한 선생님의 독야청청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평생의 동지 가인 김병로(街人 金炳魯) 초대대법원장께서도 평소에 고하선생님을 조선시대에서 이율곡(李栗谷)과 함께 가장 존경할 인물이라고 말씀하시었고 가인은 임종의 순간에도 고하선생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셨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2천만 조선민중은 누구든지 국권회복의 기회가 오면 한 몸 바칠 각오가 되어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로 눈을 돌리면 만주벌판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하신 선열들,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워 품찬노숙을 마다않고 몸바치신 애국지사들, 러시아나 연해주 등지에서 활약하신 지도자들, 미주와 유럽에서 일제의 불법 강점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앞장 선 선각자들을 잇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각지에서 치열하게 추진되어 온 여러 갈래의 해외독립운동은

국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여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지원해주고, 귀한 인쇄용 한글 활자를 보내주며, 크고 작은 해외독립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린 국내독립운동 지도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에 의하여 더욱 든든하고 효과적 투쟁이 되었습니다. 고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국내독립운동세력의 호응과 뒷받침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외독립운동이 탄력을 받아 발군의 효과를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흑심한 탄압과 감시 속에서 굴종과 착취만이 강요되던 조선내의 독립운동의 중심점에는 고하선생님이 우뚝 서 계십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을 도모하고 출옥 이후에는 정부도 없던 시절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끊임 없이 항일독립을 위하여 한 몸을 바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18년 가을부터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론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중앙학교 숙직실을 본부로 삼아 3·1운동이라는 회천대업(回天大業)을 획책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현상윤, 김성수 그리고 현상윤을 통하여 그의 은사인 최린과 동향선배인 이승훈 그리고 동지 최남선을 무수히 접촉하시었고, 주로 학생의 조직과 동원을 맡았습니다.

선생님은 동경에 있던 평생 동지 근촌 백관수(芹村 白寬洙)와 연락하면서 2·8 독립선언서 인쇄에 필요한 한글 활자와 자금을 보내고 거사지침을 상의하였습니다. 중앙학교 숙직실을 중심으로 비밀 연락을 하던 최린은 천도교를, 현상윤은 정주의 이승훈을 접촉하여 거대한 기독교세력과의 합동을 성취했습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에는 33인만이 민족대표로 서명했으나 제2진, 제3진의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 배후추진주체인 고하 선생님 등은 서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일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함께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3·1독립운동의 거사를 도모하고 추진한 국내지도자들을 33인과 48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기념사업에는 고하선생님을 중심으로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의 첫 횃불을 올린데 대해 주목하지 않고 일부 극소수의 지도자가 주도하여 광복을 달성한 듯 서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여

러 갈래로 국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골고루 균형있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해방 후 혼란기에서 좌우가 대립하던 시절 필사적으로 공산당을 막고 민주건국을 위하여 진력하신 고하 선생님의 희생과 노력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이를 기려야 할 것입니다.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는 매년 국경일과 고하선생님의 탄신일 및 기일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동상과 창동 3사자 동상 그리고 이곳 독립유공자묘역의 유택에 참배 및 헌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 고택과 고하선생기념관의 관리 등은 송진한 교수가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은 공동으로 2021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를 선정하였는데, 고하 선생님께서는 일장기말소사건의 주역으로서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었으며, 세 기관은 선생님의 희생과 공훈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서는 음년에 고하송진우일대기: “독립을 향한 집념” 을 증보 발간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 및 국민들에게 민족의 얼과 긍지를 심어주고, 왜곡된 독립운동사와 해방전후사를 바로잡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조강환 동우회 명예회장, 추모사를 해주실 용교순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광복회 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양준석 국민대학교 교수님께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창 식